

경제위기상황에서의 소득감소에 따른 가계경제구조 대응행태고찰*

The Effects of Household Income Drops on Household Economic Status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부교수 양 세 정**

Major in Consumer & Housing Studies, Sangmyu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Yang, Se-Je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household income drops on household economic status during economic crisis periods. Using the data taken from Korean Household Panel Study for 1996 and 1998, it was investigated how household income change affected household income, expenditure, and assets/debt. The economic status change of the income-decreased group was compared with that of the income-increased group.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Average income of the total sample was 1,905 thousand won in 1996, while 1,419 thousand won in 1998. The household of which income was decreased during the period was 65.1% of total sample. Average income of the group was reduced from 2,263 thousand won to 1,239 thousand won. Among income sources, the amount of income from real asset was found to be the highest decreasing rate, and the amounts of both business and employed-work income were reduced almost up to an half of those in two years ago.

The amounts for all expenditure categories were also decreased with decreasing household income. Especially the expenditures for food away from home, leisure, durable, recreation, and vehicle-related expense were found to have the highest income elasticity. The households with decreased income were found to reduce household expenditures by 377 thousand won per month, which was 70.9% of that in 1996. Decreases in household income resulted in decreases in net wealth by 10,170 thousand won. With decreases in household income, the amounts of total insurance and private savings such as gye were decreased, and so were the amounts of real assets and monetary assets.

▲ 주요어(Key Words) : 경제위기(economic crisis), 가계소득감소(household income drop), 가계경제구조(household economicstatus), 가계소득(household income), 저축(savings), 부채(debts), 자산(wealth), 소비지출(expenditure)

1. 서론

1960년대 이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온 우리나라는 1997년말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국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맞았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의 순환메커니즘 하에서 급속히 가계로 경향력이 전이되었으며, 우리나라 가계는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

한 경제력의 후퇴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가계소득은 가계소비와 자산축적을 위한 기본적인 자원이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소득감소는 여러 측면에서 가계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가계소득의 감소는 가계의 구매력감소를 의미하며, 결국 소비지출의 감소로 이어진다.

경제위기 이후의 자료를 살펴보면, 가계소비지출은 가계소득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 감소폭이 소득의 변화폭에 비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감소가 나타나기 전인 1997년 4/4분기를 기점으로 소비지출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98년 3/4분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0-003-D00185). 해당프로젝트의 일부분임.

* 주저자 : 양세정 (sjyang@smu.ac.kr)

기에는 감소폭이 16.8%로 통계청이 소비지출기록을 시작한 이래 최고의 수치였다(통계청, 1999).

가계소득의 감소는 소비지출 뿐만 아니라 가계자산운영형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즉 가계소득의 감소는 가계저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금융자산과 부채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소비지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마이너스저축성향을 보임으로써 금융자산의 감소 내지는 부채의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강이주와 성영애의 연구(1999)에서도 소득감소경험이 적금이나 보험계약 등 금융자산운영의 변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경제위기상황과 함께 이에 대한 가계경제구조변화행태를 살펴 본 연구들이 다수 있었다. 이들은 자료조사방법에 있어 경제위기상황이 이미 진행된 시점에서 경제위기이전상황과 이후상황을 기억에 의존하여 답변하도록 함으로써(두경자, 1999; 박혜인·조은숙, 1998 등), 답변자로 하여금 위기상황 및 그에 대한 대처행태를 확대하여 답변할 여지를 지닌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경제위기상황이 가정경제에 미친 영향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한 경우가 많았고, 분석대상 또한 일부지역에 한정되어졌다(강이주·성영애, 1999; 꺾인숙 외, 1999; 김양희 외, 1999 등). 따라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계상황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연구가 절실히 요망된다 하겠다.

본 연구는 경제위기상황에서의 소득변화상황에 대해 가계들이 어떤 식으로 가계경제구조를 변화, 대응하였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경제위기상황 전후인 1996년과 1998년에 걸쳐 동일표본가계를 추적, 조사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동기간동안 소득감소가계와 소득증가가계의 소득변화에 따른 소득구조변화를 살펴보고, 가계소비지출 및 자산/부채상태의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가계소득변화에 따른 가계경제구조의 대응행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계의 대표성을 지니는 자료를 사용하여, 두 기간동안의 가계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해 동태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경제위기상황의 경험은 소득감소시의 대응행태에 관한 실증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향후 개별가계가 소득감소시 합리적인 대응을 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국가정책에 있어서도 경기불황이 발생하였을 때 가계의 대응행태를 예측함으로써 이에 따른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소득감소가계에 대한 지원정책수립 시에도 관련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국내·외 연구동향

가계에서 발생하는 소득감소는 가계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이 소득과 소비관계를 분석한 것들이다. 일정시점에서의 소득수준은 그 시점에서의 소비수준을 결정한다는 케인즈(Keynes)의 절대소득가설이 있으며, 일생동안

의 기대소득을 항상소득이라 명하며 소비지출이 바로 이 항상소득의 함수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한 프리드만(Friedman)의 항상소득가설이 있다. 항상소득가설의 경우는 결국 일시적인 소득감소나 증가는 해당 경제주체로 하여금 소비지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시사하였다.

듀센베리(Duesenberry)가 주장한 상대소득가설은 소비지출이 상대소득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으로, 여기서 상대소득이란 주위집단들의 소득에 대한 해당 경제주체의 소득수준 또는 과거소득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대적 소득수준에 의해 현재의 소비지출이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해도 과거의 소득이 현재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소비는 크게 감소하지 않는 소비의 불가역성을 언급하였다. 안도(Ando)와 모디그리아니(Modigliani)에 의한 생애주기가설은 항상소득과 유사하게 일생을 통한 일정수준의 생애소득이 있어 이에 의해 소비지출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으로, 이때 생애소득은 근로소득과 자산을 포함하게 된다(김기화, 1991).

이들 이론들은 다소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소득수준은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며, 일시적인 소득의 변화가 그 시점에서의 소비지출에 민감하게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소득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소비지출의 변동이 크지 않음은 결국 소득수준의 변화를 저축수준의 변화를 통해 조절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간 소득수준이 가계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증 연구들이 있어왔다. 관련연구들은 주로 소비지출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는데, 이들 연구들은 일정지역 내에서 조사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특성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하거나(강이주·박명희, 1990; 김기욱·이승신, 1990 등), 또는 특정집단의 가계소비지출행태를 분석하였다(문숙재·정순희, 1995; 성영애·양세정, 1997 등). 가계소비지출에 대한 연구에 비해 가계경제구조를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양세정(1997)은 1996년 소비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주부취업과 가계경제구조를 분석하면서 주부취업여부에 따른 가계소득구조와 금융자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교하였다. 배준호(1998)와 노웅원과 배진한(1998)은 동일자료를 사용하여 각기 저소득층가구의 생활실태와 지역별 소득분배 및 생활실태를 분석한 바 있다. 황덕순과 주문자(1999)의 연구는 소득수준과 금융자산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봉급생활자가계의 경우 월급여와 여러 형태의 금융자산규모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영업자가계는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부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영애와 최현자(2000)는 소득 및 자산이 가계부채의 보유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구하였다. 가계소득규모는 대부분의 주요 부채유형 보유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자수가 많음에 따라 은행 및 기타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채를 보유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부채보

유여부와 유의한 관련이 있으며, 가계의 채권보유여부와 은행부채보유여부, 그리고 보험보유여부와 기타금융기관부채보유 여부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경제위기상황에서 소득감소를 경험하면서 가계경제적 대처행동을 다룬 연구는 다수 있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소득감소에 따른 가계경제구조의 대응행태를 객관적 추이를 통해 검증하기보다는,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대처행동을 기억에 의존해 평가하거나 또는 리커트척도 등을 사용한 주관적 평가를 토대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먼저 한국소비자보호원(1988)은 IMF체제를 전후한 소비자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전반적 소비생활의식과 소비행태변화에 대해 IMF체제 이전상태와 현재상태를 주관적으로 비교 평가하였다. IMF체제의 영향으로 생활비가 줄었다는 가계가 81.3%에 달하였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했다는 가계가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를 가장 많이 줄인 지출비목으로는 잡비(용돈), 외식비, 식료품비의 순으로 답하였다.

두경자(1999)의 연구 역시 1998년 시점에서 IMF이전과 이후 소비수준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조사대상주부들은 소비수준이 경제위기상황과 함께 낮아진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거의 모든 지출비목에 대해 소비수준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변화가 적을수록 소비지출수준의 차이가 많다고 평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이주와 성영애(1999)는 IMF경제위기 이후 가계소득감소 경험 여부가 가계의 경제적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계소득감소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고, 이러한 것이 가계의 소비지출항목별로 지출경감노력, 자산이용노력, 소득창출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노력정도를 5점척도 리커트척도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소득감소경험이 있는 가계의 경우 전 지출비목에 대해 지출감소의 노력을 했으며, 적금·보험해약 등의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감소경험가계의 경우 주부가 취업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반면, 여타가구원들은 취업 및 부업을 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희 외(1999)는 실직가정을 대상으로 그들 가정의 실직에 따른 생활실태 및 대처방식을 조사, 분석한 바 있다. 가계경제상태의 변화를 평가함에 있어 소득, 금융자산 등에 대해 증가, 감소여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생활비와 금융자산, 저축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는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생산/단순노무직이었던 가계의 경우 사무관리직에 비해 생활비와 금융자산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정희와 홍순명(2000)은 각 연구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주관적 불안감이 의생활과 식생활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경제적 불안은 소득불안, 고용불안, 재정불안, 물가불안, 상대적 박탈불안으로 나누어서 각기 불안정도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식생활대처행동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물가불안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적 불안감의 경우 식생활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논의한 연구들이 경제위기상황에 따른 대처행태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게 한 반면 일부 연구는 경제위기상황 전후에 대한 가계경제상태를 조사함에 있어 추정해서 지출액을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박혜인과 조은숙(1998)은 소득계층별 혼례비용이 IMF경제위기 전후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1996년에서 1998년 사이에 자녀를 결혼시킨 가구 중 IMF체제 이전가구와 이후가구의 비용을 조사,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경제위기 이후 혼례비용의 변화는 중상층이하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상층에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집단에서는 혼례비용의 차이는 보이지 않은 반면, 혼례비용을 주택마련비용 보다 실질적인 비목으로 이동시킨 경향을 보였다. 락인숙 외(1999)의 연구도 이와 유사하게 경제적 위기상황 전후 비교를 통해 경제적 위기가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의생활과 식생활에 관하여서는 생활태도 자체가 변화했는지에 대해 주관적으로 묻고 답한 데 반해, 비목별 지출변화는 기업에 의존하여 수치로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총지출의 변화는 가계총소득의 변화와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위기상황이 가계경제에 미친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가구의 대표성을 지닌 자료를 통해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또한 가계소득변화에 따른 가계경제구조의 대응행태를 개별 가계의 패널자료를 사용한 동태적 분석을 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당시 경제위기상황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패널조사(Korean Household Panel Study, 이하 KHPS)의 1996년과 1998년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자료는 1993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다단계 층화확률표본이론에 근거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이 선정되어 우리나라가구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KHPS 설문서는 가구 및 주거에 관한 사항, 가구소득관련사항, 소비지출, 금융상품보유현황 등 가구관련자료 및 가구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경제활동상황, 취업 등의 자료를 포함한다. 패널자료는 정해진 표본가구를 지속적으로 추적함으로써 특정가계의 경제구조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경제상황악화에 따른 가계경제구조의 변화행태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된다.

경제위기상황 속에서 소득감소를 경험한 가계의 가계경제구조변화를 파악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1996년과 1998년의 두 개 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국가적 경제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1997년 초반부터 조금씩 야기되어졌다는 점, 그리고 IMF관리체제에 들어간 시점이 1997년 11월이었음을 감안하여 경제위기 전 시점을 1996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경제위기상황 후의 시점으로는 1998년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원자료는 1996년에 2,712가구, 1998년에 2,468가구가 조사되었으며, 이들 중 2,179가구가 두 개년 모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들 가구 중 가구주가 미혼인 가구, 부부가 비동거가구인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할 변수에 대한 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만을 본 연구의 자료로 최종 추출하였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한 대상은 총 1,377가구였다.

2. 분석방법

자료는 SA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경제지표에 대해 평균값, 빈도 등 기술적 통계치를 산출하였으며, 자료제시의 시각화 작업을 위하여 Excel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였다. 분석대상가구는 1996년에서 1998년의 가계소득을 비교하여 소득감소가계와 소득증가가계로 분류하였고, 소득감소가계는 다시 소득감소정도에 따라 1996년 소득에 비해 1998년의 소득이 25%이하 감소한 경우(이하, '25%이하 소득감소'), 25%초과부터 50%이하 감소한 경우(이하, '50%이하 소득감소'), 50%초과한 수준으로 감소한 경우(이하, '50%초과 소득감소')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또한 필요에 따라 연령계층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소득감소가계와 증가가계의 분류방법은 각 가계에 대해 1996년과 1998년의 월평균가계소득을 산출하고, 1996년 소득수준은 1998년 물가수준으로 연동한 후(1996년 가계소득수치 \times 1.123) 두 값을 비교하였다. 소득감소가계와 증가가계의 구체적인 분류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1996년과 1998년의 소득이 동일한 경우는 소득증가가계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가 소득감소가계의 행태에 주요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밖의 가계를 소득증가가계에 포함한다는 의도였다.

- 소득감소가계(Incgroup=1):
(1998년 가계소득) < (1996년 가계소득 \times 1.123) 인 경우의 가계
- 소득증가가계(Incgroup=0):
(1998년 가계소득) \geq (1996년 가계소득 \times 1.123) 인 경우의 가계

경제위기상황에서의 소득변화에 따른 가계경제구조의 대응행태는 소득, 소비지출, 자산/부채에 관한 분석을 통해 고찰되었으며, 이때 1996년 자료들은 모두 1.123을 곱함으로써 1998년 가격으로 환산하여 분석에 사용되었다.

소득의 경우 총가계소득의 변화가 세부소득비목 중 어느 부분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특정소득출처에서의 소득규모의 변화가 사후적으로 여타소득출처에 대해 어떤 행태의 변화를 초래하는지에 관해 분석의 초점이 주어졌다. 소비지출과 자산/부채의 경우는 가계의 소득변화에 따른 변화양태를 분석하였다. 소득변화에 따라 소비지출유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소득의 변화가 저량의 개념인 가계의 자산과 부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소득, 소비지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세부항목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때 세부항목은 원자료의 항목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일부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특히 소비지출항목의 경우 지출분류방법이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분류방법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의 분류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소득감소가계와 증가가계의 특성 비교

<표 1>은 분석대상가구의 1996년과 1998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가구는 총 1,377가구였다. 1996년에 비해 1998년에 소득이 감소한 가계는 전체가구의 거의 2/3에 육박하는 897가구였으며, 1/3에 해당하는 480가구가 동기간 중에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6년 월평균가계소득은 190.5만원이었고, 1998년에는 141.9만원으로 25.5% 감소하였다.

1996년 자료를 살펴보면 평균가구원수는 3.70명이며, 가구주 평균연령은 49.3세였다. 소득감소가계의 경우 30대 이하인 경우가 감소가계의 3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증가가계의 27.9%와 격차를 보였으며, 젊은 계층에서 동기간동안에 소득감소를 보다 많이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주 직업별로 살펴보면, 가구주가 봉급생활자이거나 임시직 종사자인 경우 해당기간동안 가계소득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지유형의 경우 가계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감소를 겪었을 가능성이 서울이나 군소도시 거주 가구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감소가계의 68.3%가 자가계였는데 반해, 소득증가가계의 72.3%가 자가계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감소가계의 전, 월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 분석대상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1996년,1998년
(단위: 가구수, %)

| | 1996년 | | | 1998년 | |
|------------------|--------------|--------------|--------------|--------------|--------------|
| | 소득감소 가계 | 소득증가 가계 | 전체가계 | 전체가계 | |
| 조사대상 가구 수(%) | 897 (65.1) | 480 (34.9) | 1,377(100.0) | 1,377(100.0) | |
| 가계소득 (평균, s.d.) | 226.3(231.0) | 124.8(115.8) | 190.5(204.4) | 141.9(123.3) | |
| 가구원수 (평균, s.d.) | 3.74 (1.36) | 3.64 (1.38) | 3.70 (1.36) | 3.63 (1.36) | |
| 가구주연령 (평균, s.d.) | 48.8 (13.8) | 50.2 (13.6) | 49.3 (13.7) | 51.4 (13.7) | |
| 가구주 연령 | 30대이하 | 302 (33.7) | 134 (27.9) | 436 (31.7) | 336 (24.4) |
| | 40대 | 203 (22.6) | 117 (24.4) | 320 (23.2) | 357 (25.9) |
| | 50대 | 157 (17.5) | 95 (19.8) | 252 (18.3) | 258 (18.7) |
| | 60대이상 | 235 (26.2) | 134 (27.9) | 369 (26.8) | 426 (31.0) |
| 가구주 직업 | 봉급생활자 | 319 (35.6) | 152 (31.7) | 471 (34.2) | 401 (29.1) |
| | 자영/자유직종사자 | 348 (38.8) | 219 (45.6) | 567 (41.2) | 561 (40.7) |
| | 임시직종사자 | 83 (9.3) | 32 (6.7) | 115 (8.4) | 109 (7.9) |
| | 무직/기타 | 147 (16.4) | 77 (16.0) | 224 (16.3) | 306 (22.2) |
| 가구주 성별 | 남 | 799 (89.1) | 431 (89.8) | 1,230(89.3) | 1,212 (88.0) |
| | 여 | 98 (10.9) | 49 (10.2) | 147 (10.7) | 165 (12.0) |
| 거주지 유형 | 서울 | 196 (21.9) | 96 (20.0) | 292 (21.2) | 291 (21.1) |
| | 대도시 | 246 (27.4) | 108 (22.5) | 354 (25.7) | 376 (27.3) |
| | 중소도시 | 280 (31.2) | 131 (27.3) | 411 (29.8) | 391 (28.4) |
| | 군소도시 | 175 (19.5) | 145 (30.2) | 320 (23.2) | 319 (23.2) |
| 주거 유형 | 자가 | 613 (68.3) | 347 (72.3) | 960 (69.7) | 972 (70.6) |
| | 전세 | 209 (23.3) | 99 (20.6) | 308 (22.4) | 311 (22.6) |
| | 월세 | 75 (8.4) | 34 (7.1) | 109 (7.9) | 94 (6.8) |

1998년 자료를 살펴보면 1996년에 비해 가구주가 봉급생활자 인 경우가 34.2%에서 29.1%로 다소 줄었으며, 여성가구주인 가 계가 147가구에서 165가구로 18가구가 늘어났다. 한편 주거유형 은 자가가구에 거주하는 경우가 12가구 늘어 자가가구비율이 69.7%에서 70.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소득감소가계와 증가가계의 소득5분위별 분포
(단위: 가구수, %)

| | | 소득감소가계 | 소득증가가계 | 전체가계 |
|-----------------|----------------|------------|------------|------------|
| 96년 기준 소득5분위 | 1분위 (51만원미만) | 106 (11.8) | 170 (35.4) | 276 (20.0) |
| | 2분위 (135만원미만) | 165 (18.4) | 110 (22.9) | 275 (20.0) |
| | 3분위 (213만원미만) | 182 (20.3) | 92 (19.2) | 274 (19.9) |
| | 4분위 (281만원미만) | 211 (23.5) | 75 (15.6) | 286 (20.8) |
| | 5분위 (281만원이상) | 233 (26.0) | 33 (6.9) | 266 (19.3) |
| 98년 기준 소득5분위 | 1분위 (29만원미만) | 182 (20.3) | 85 (17.7) | 267 (19.4) |
| | 2분위 (97.5만원미만) | 193 (21.5) | 91 (18.9) | 284 (20.6) |
| | 3분위(151.5만원미만) | 218 (24.3) | 55 (11.5) | 273 (19.8) |
| | 4분위(220.5만원미만) | 186 (20.7) | 91 (19.0) | 277 (20.1) |
| | 5분위(220.5만원이상) | 118 (13.2) | 158 (32.9) | 276 (20.0) |

<표 2>는 1996년과 1998년의 소득감소가계와 증가가계의 소 득5분위 별 분포 상황을 나타낸다. 동기간 동안에 나타난 전반적 인 소득감소로 인해, 1996년의 경우 281만원이상인 가계가 소득5 분위에 해당되는 반면 1998년에는 220.5만원이상만 되어도 동일 소득분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표에 의하면 소득감소가 계의 경우 소득의 변화는 절대적인 소득감소 뿐만 아니라 상대 적인 소득감소 역시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감소가계는 1996년에 고소득계층인 4, 5분위를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하였으나, 1998년에는 33.9%로 비율이 줄었다. 반면 소득증가가계는 1998년에 5분위에 속하는 가계가 32.9%를 나타남으로 써 이들 집단의 경우 다수 가계들이 소득감소를 한데 따른 상대 적 의미에서의 소득계층의 상승을 경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 겠다. 소득5분위 상에서 살펴볼 때 결과적으로 동기간동안의 소 득감소는 가구의 50%이상이 소득분위를 한 단계이상 하향화시 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최고소득계층인 5분위에 속했던 집 단의 경우 40.8%만이 원위치를 지켰고, 31.7%가 3분위 이하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표 3).

<표 3> 소득감소가계의 소득5분위상의 위치 변동:1996년, 1998년
(단위: %)

| | | 98년기준 소득5분위 | | | | | 합 계 |
|----------------|---|-------------|------|------|------|------|-------|
| | | 1 | 2 | 3 | 4 | 5 | |
| 96년기준 소득5분위 | 1 | 91.5 | 85 | 0.0 | 0.0 | 0.0 | 100.0 |
| | 2 | 30.3 | 56.4 | 13.3 | 0.0 | 0.0 | 100.0 |
| | 3 | 7.7 | 26.9 | 49.5 | 15.9 | 0.0 | 100.0 |
| | 4 | 4.3 | 8.9 | 31.8 | 44.1 | 10.9 | 100.0 |
| | 5 | 5.2 | 9.8 | 16.7 | 27.5 | 40.8 | 100.0 |

2. 가계경제구조분석 : 소득구조

<표 4>는 소득감소가계와 증가가계의 소득항목별 소득규모 를 나타낸 것으로, 1996년과 1998년의 가계소득상황을 나타낸다. 소득감소가계는 1996년에 월평균 226.3만원의 소득이 있었으나, 1998년에는 123.9만원으로 102.4만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1996년 소득규모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2%가 줄은 수치이다. 반면 소득증가가계는 가계소득이 월평균 124.8만원에서 175.5만원으로 40.6%가 증가하였다.

소득감소가계의 경우 소득항목 전반에 대해 소득규모의 감소 가 나타났는데, 이 중 감소분의 43.8%가 근로소득에서 그리고 39.3%가 사업소득에서 비롯됨으로써, 이들 두 소득출처에서의 소득감소분이 총소득감소분의 83.1%를 차지했다. 감소율로 보면 부동산소득이 69.8%라는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당 시 부동산임대료의 급락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소득감소가계는 기타소득이나 이전소득 등을 통해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주요 소득원의 부족분을 보충하지 못함으로써 1996년에

서 1998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높은 폭의 소득감소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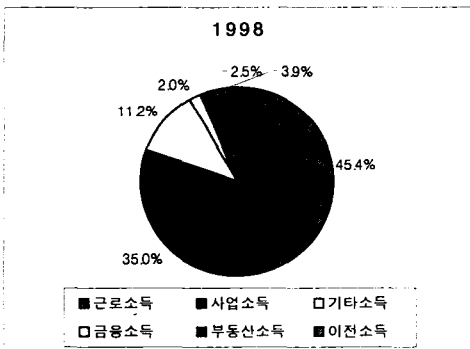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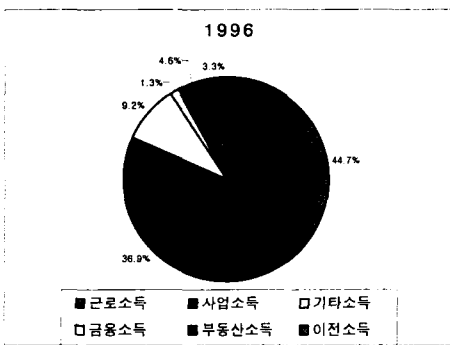
반면 소득증가가계는 소득출처 전반에서 소득증가를 보였는데, 특히 금융소득에서 6.3배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당시의 금리급등상황에 따라 금융자산을 가진 가구가 자산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유리했음을 시사한다. 근로소득의 증가율은 19.0%였는데 반해 사업소득의 증가율은 43.0%였으며, 부업 등에 따른 기타소득의 증가율도 71.0%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4> 소득감소가계와 증가가계의 소득구조 변화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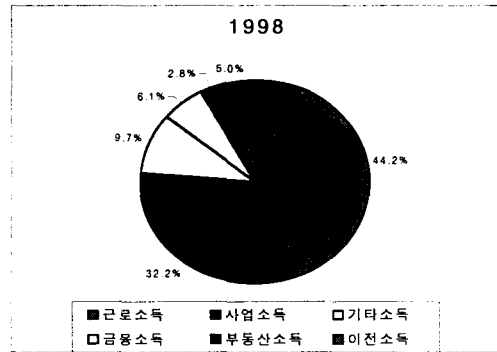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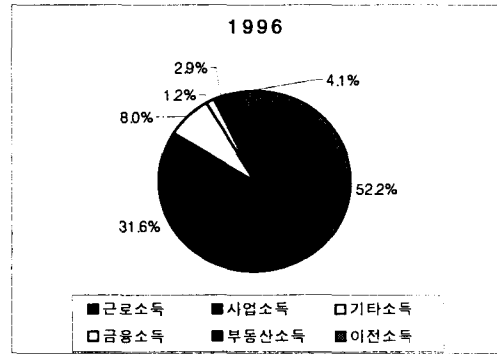
| | 소득감소가계 | | | | | 소득증가가계 | | | | |
|--------|--------|-------|--------|-------|-------------|--------|-------|------|-------|-------------|
| | 1996 | 1998 | 변화량 | 변화율 | 변화량/총소득 변화량 | 1996 | 1998 | 변화량 | 변화율 | 변화량/총소득 변화량 |
| 근로소득 | 101.1 | 56.3 | -44.8 | -44.3 | 0.438 | 66.1 | 77.5 | 12.4 | 19.0 | 0.245 |
| 사업소득 | 83.5 | 43.3 | -40.2 | -48.2 | 0.383 | 39.5 | 56.5 | 17.0 | 43.0 | 0.335 |
| 기타소득* | 20.8 | 13.9 | -6.9 | -33.1 | 0.067 | 10.0 | 17.1 | 7.1 | 71.0 | 0.140 |
| 금융소득 | 2.9 | 2.5 | -0.4 | -15.0 | 0.004 | 1.5 | 10.7 | 9.3 | 630.6 | 0.181 |
| 부동산소득 | 10.4 | 3.1 | -7.2 | -69.8 | 0.071 | 3.6 | 4.9 | 1.3 | 35.5 | 0.026 |
| 이전소득** | 7.5 | 4.8 | -2.7 | -35.7 | 0.026 | 5.1 | 8.8 | 3.7 | 72.6 | 0.073 |
| ●총소득 | 226.3 | 123.9 | -102.3 | -45.2 | --- | 124.8 | 175.5 | 50.7 | 40.6 | --- |

* 기타소득은 비정규직소득이나 부업소득을 포함함.
** 이전소득은 연금이나 친지 등으로부터의 보조금을 포함함.

소득감소가계



소득증가가계



<그림 1> 가계의 소득구조: 1996년, 1998년

<그림 1>은 소득감소가계와 증가가계의 1996년과 1998년의 소득구조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소득감소가계에 비해 소득증가가계의 경우 근로소득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의 다양한 소득출처를 통한 소득획득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소득출처가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가계소득의 안정도 확보에 기여함을 시사한다.

<표 5>는 소득감소정도에 따라 1996년과 1998년의 소득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1996년의 소득에 대해 1998년의 소득이 25% 이하 감소한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기 14.9%와 18.7% 감소하였지만 기타소득과 금융소득 등 여타 소득출처에서 소득수준이 상승함으로써 소득감소폭이 줄었다.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를 살펴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에서 큰 폭의 감소를 보였으며 특히 소득이 50%이상 감소한 집단의 경우는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출처에서 소득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의 커다란 소득감소폭이 다양한 소득출처의 소득감소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하였다.

소득감소가계를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감소율이 50대가 구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0대이상의 최고령계층가구였으며, 3, 40대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의 감소폭을 보였다. 연령층이 높음에 따라 근로소득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5, 60대 이상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평균 50%이상의 감소를 보였다. 30대이하의 젊은 계층의 경우 특히 이전소득에서 큰 폭의 감소를

<표 5> 소득감소가계의 소득감소정도별 소득구조 변화

(단위: 만원, %)

| | 25%이하 소득감소 (268가구) | | | | 25%초과-50%이하 소득감소 (287가구) | | | | 50%초과 소득감소 (342가구) | | | |
|-------|-----------------------|-------|-------|-------|-----------------------------|-------|-------|-------|-----------------------|------|--------|-------|
| | 96 | 98 | 변화량 | 변화율 | 96 | 98 | 변화량 | 변화율 | 96 | 98 | 변화량 | 변화율 |
| 근로소득 | 1129 | 96.1 | -16.8 | -14.9 | 1130 | 63.6 | -49.4 | -43.7 | 82.0 | 19.0 | -63.0 | -76.8 |
| 사업소득 | 66.5 | 54.1 | -12.4 | -18.7 | 86.4 | 55.8 | -30.6 | -35.4 | 94.4 | 24.2 | -70.2 | -74.4 |
| 기타소득 | 11.1 | 13.8 | 2.7 | 24.3 | 18.9 | 16.8 | -2.1 | -11.1 | 30.1 | 11.6 | -28.5 | -61.5 |
| 금융소득 | 2.3 | 2.8 | 0.5 | 21.7 | 2.7 | 3.6 | 0.9 | 33.3 | 3.7 | 1.3 | -2.4 | -64.9 |
| 부동산소득 | 4.3 | 4.5 | 0.2 | 4.7 | 4.4 | 2.6 | -1.8 | -40.9 | 20.1 | 2.5 | -17.6 | -87.6 |
| 이전소득 | 5.6 | 4.8 | -0.8 | -14.3 | 8.3 | 5.3 | -3.0 | -36.2 | 8.3 | 4.4 | -3.9 | -47.0 |
| • 총소득 | 202.6 | 176.2 | -26.4 | -13.0 | 233.6 | 147.6 | -86.0 | -36.8 | 238.6 | 63.1 | -175.5 | -73.6 |

<표 6> 소득감소가계의 가구주 연령계층별 소득구조 변화

(단위: 만원, %)

| | 30대이하(302가구) | | | | 40대(203가구) | | | | 50대(157가구) | | | | 60대이상(235가구) | | | |
|-------|--------------|-------|-------|-------|------------|-------|-------|-------|------------|-------|--------|-------|--------------|------|-------|-------|
| | 96 | 98 | 변화량 | 변화율 | 96 | 98 | 변화량 | 변화율 | 96 | 98 | 변화량 | 변화율 | 96 | 98 | 변화량 | 변화율 |
| 근로소득 | 128.7 | 81.3 | -47.4 | -36.8 | 94.7 | 63.7 | -31.0 | -32.7 | 127.7 | 55.4 | -72.3 | -56.6 | 53.5 | 18.4 | -35.1 | -65.6 |
| 사업소득 | 108.2 | 56.9 | -51.3 | -47.4 | 116.4 | 63.7 | -52.7 | -45.3 | 72.6 | 33.6 | -39.0 | -53.7 | 30.7 | 14.6 | -16.1 | -52.4 |
| 기타소득 | 12.6 | 14.0 | 1.4 | 11.1 | 29.8 | 19.4 | -10.4 | -34.9 | 30.6 | 12.8 | -17.8 | -58.2 | 17.2 | 9.8 | -7.4 | -43.0 |
| 금융소득 | 2.2 | 2.1 | -0.1 | -4.5 | 4.2 | 2.9 | -1.3 | -31.0 | 2.2 | 3.6 | 1.4 | 63.6 | 3.3 | 1.9 | -1.4 | -42.4 |
| 부동산소득 | 0.9 | 1.3 | 0.4 | 44.4 | 3.4 | 2.4 | -1.0 | -29.4 | 35.9 | 2.6 | -33.3 | -92.8 | 11.5 | 6.4 | -5.1 | -44.3 |
| 이전소득 | 3.4 | 1.2 | -2.2 | -64.7 | 2.0 | 1.7 | -0.3 | -15.0 | 7.5 | 5.3 | -2.2 | -29.3 | 17.4 | 11.7 | -5.7 | -32.8 |
| • 총소득 | 256.0 | 156.9 | -99.1 | -38.7 | 250.5 | 153.8 | -96.7 | -38.6 | 276.5 | 113.3 | -163.2 | -59.0 | 133.6 | 62.8 | -70.8 | -53.0 |

보였는데, 이러한 수치는 사회전반적인 경제적 위기상황에 의해 이전소득을 지급하는 주체들이 타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출을 감소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표 6). 이러한 결과는 국가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 이전소득은 가계의 소득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이 되지 못함을 시사한다.

3. 가계경제구조분석: 소비지출구조

<표 7>은 소득감소가계와 증가가계의 소비지출비목별 지출 규모에 대한 자료이다. 소득감소가계의 경우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전 지출비목에서 소비지출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증가가계 역시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소비지출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소득증가가계 역시 심리적 요인에 의해 소비지출성향을 줄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7-1>은 <표 7>을 근거로 하여 소득감소가계와 증가가계에 대해 소득탄력성 크기별로 소비지출비목을 정리한 것이다. 소득감소가계의 경우 모든 지출비목의 소득탄력성이 양(+의) 수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이들 집단이 96년에서 98년에 이르는 동안 소

득감소와 함께 모든 지출비목에서 지출규모를 줄였음을 의미한다. 반면 소득증가가계의 경우 동기간동안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교육비, 관리/공과금, 의료비, 경조사비에서 지출규모가 증가하였고, 나머지 지출비목에서는 소비지출규모가 오히려 감소함에 따라 소득탄력성이 음(-)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소득탄력성이 음(-)의 부호인 것은 소득증가가계에서 소득증가율이 (+)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출비목의 소비증가율이 (-)였기 때문이었고, 이는 앞서도 논의하였듯이 당시의 사회전반적인 소비위축심리가 소득증가가계에도 팽배하였던 결과였다.

소득감소가계의 경우 차량관련비 지출에 월평균 8.4만원, 식품비에 대한 지출은 7.2만원을 줄였고, 자녀교육비 또한 4.7만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비목이 지출규모면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인 지출비목이었다. 소득탄력성을 살펴보면 내구재 구입비, 휴가비, 외식비, 교양오락비, 차량관련비 등 일반적으로 사치재로 분류되는 지출비목들에서 1이 넘는 높은 탄력성을 보였다. 즉 소득이 1% 감소함에 따라 소비지출의 감소율이 1%를 넘는 지출비목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민감하게 지출규모에 변화를 일으키는 지출비목이라 할 수 있다. 자녀교육비와 경조사비의 경우 소득탄력성이 0.5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생필품의 대

표적인 비목으로 분류되는 식료품비의 0.455와 유사한 수치를 보임으로써 경제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지출을 쉽게 줄이지 않는 지출비목임을 보여주었다.

소득감소가계의 소득에 대한 총소비지출의 탄력성이 0.644인데 반해 소득증가가계의 탄력성은 -0.226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감소가계는 소득감소에 따라 소비지출이 감소한데 반해, 소득증가가계는 소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전반적인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향후 경제상황에 비관적 전망에 따라 소비지출을 자제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상황이 일반적인 소득과 소비에 관한 경제이론들이 적용되지 않으며, 김기욱과 이승신(1990)이 행동경제학적 이론을 통해 주장한 소비자의 심리적 요인, 즉 경제에 대한 주관적 전망이 가계의 소비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특히 내구재구입비는 소득이 감소하였거나 증가하였거나 상관없이 경제위기상황에서 가장 지출규모를 크게 줄인 소득탄력성이 높은 지출비목으로 나타남으로써, 내구재구입이 거시경제적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경조사비는 의료비, 관리/공과비와 함께 소득변동에 가장 적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증가가계에서도 타지출비목과는 달리 낮은 양(+)의 소득탄력성을 보임으로써 경기상황에 따른 심리적 요인이 이들 비목에서의 소비지출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표 7> 소득감소가계와 소득증가가계의 소비지출비목별 지출규모의 변화: 1996년, 1998년

(단위: 만원, %)

| | 소득감소가계 | | | | | 소득증가가계 | | | | |
|--------|--------|------|-------|-------|-------|--------|------|-------|-------|--------|
| | 1996 | 1998 | 변화량 | 변화율 | 탄력성 | 1996 | 1998 | 변화량 | 변화율 | 탄력성 |
| 식료품비 | 35.0 | 27.8 | -7.2 | -20.6 | 0.455 | 29.4 | 28.7 | -0.7 | -2.5 | -0.060 |
| 외식비 | 3.8 | 1.7 | -2.1 | -55.0 | 1.216 | 3.0 | 2.7 | -0.2 | -8.1 | -0.194 |
| 주거비 | 5.4 | 3.3 | -2.1 | -39.4 | 0.871 | 4.5 | 3.1 | -1.4 | -31.4 | -0.753 |
| 관리/공과비 | 11.1 | 10.8 | -0.3 | -3.0 | 0.066 | 10.1 | 11.4 | +1.2 | 12.0 | 0.289 |
| 피복및신발비 | 8.5 | 4.6 | -3.8 | -45.2 | 0.999 | 7.4 | 5.6 | -1.8 | -24.6 | -0.590 |
| 교양오락비 | 5.5 | 2.9 | -2.6 | -47.6 | 1.052 | 4.7 | 3.4 | -1.3 | -27.0 | -0.648 |
| 교육비 | 21.5 | 16.9 | -4.7 | -21.6 | 0.478 | 19.0 | 17.5 | -1.5 | -8.1 | -0.193 |
| 자녀보육비 | 0.4 | 0.3 | -0.1 | -27.3 | 0.603 | 0.3 | 0.4 | +0.2 | 69.2 | 1.660 |
| 의료비 | 5.3 | 4.2 | -1.1 | -20.2 | 0.446 | 4.9 | 5.4 | +0.5 | 10.3 | 0.248 |
| 경조사비 | 9.3 | 7.2 | -2.1 | -22.6 | 0.500 | 8.6 | 8.6 | +0.1 | 0.8 | 0.020 |
| 휴가비 | 1.3 | 0.5 | -0.7 | -57.5 | 1.271 | 1.0 | 0.7 | -0.3 | -29.7 | -0.712 |
| 내구재구입비 | 3.8 | 1.4 | -2.4 | -62.7 | 1.386 | 2.9 | 1.6 | -1.2 | -43.5 | -1.043 |
| 차량관련비 | 18.6 | 10.1 | -8.4 | -45.4 | 1.003 | 14.2 | 10.4 | -3.8 | -26.7 | -0.640 |
| ●총소비지출 | 129.5 | 91.8 | -37.7 | -29.1 | 0.644 | 110.0 | 99.6 | -10.4 | -9.4 | -0.226 |

주: 변화량과 변화율, 탄력성은 1996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의 1998년 값을 비교한 것이다. 각 지출비목에 있어서의 변화량은 1998년지출규모-1996년 지출규모이며, 변화율은 (1998년 지출규모-1996년 지출

모)/1996년 지출규모, 탄력성은 1996년에서 1998년 기간동안의 소비지출변화율/소득변화율을 산출한 것이다.

<표 7-1> 소득감소가계와 증가가계의 소득탄력성 크기별 소비지출비목 비교

| 탄력성 | 소득감소가계 | 소득증가가계 |
|------------------------|--|--|
| $\epsilon > 1$ | 내구재구입비 휴가비 외식비 교양오락비 차량관련비 | 자녀보육비 |
| $0.5 < \epsilon < 1$ | 피복 및 신발비 주거비 자녀보육비 | - |
| $0 < \epsilon < 0.5$ | 경조사비 교육비 식료품비 의료비 관리/공과비 | 관리/공과비 의료비 경조사비 |
| $-0.5 < \epsilon < 0$ | - | 식료품비 교육비 외식비 |
| $-1 < \epsilon < -0.5$ | - | 피복 및 신발비 차량관련비 교양오락비 휴가비 주거비 |
| $\epsilon < -1$ | - | 내구재구입비 |

<표 8>은 소득감소가계를 다시 소득감소정도로 나누어서 1996년과 1998년 사이의 지출비목별 지출규모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표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출비목에 대해 소득감소폭이 큰 집단일수록 소득탄력성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감소폭이 25%이하인 집단의 경우 소득 1% 변화에 대한 총소비지출액의 변화율은 1.341%였으며, 반면 소득감소폭이 50%이상인 집단의 경우는 0.5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조사비와 교육비의 경우 소득이 25%이하로 소득감소한 가계의 경우 지출이 전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5%가 넘게 소득이 감소하면서 점차 소비지출을 줄였다.

소득이 25%이하로 소득감소한 집단의 경우 외식비, 피복 및 신발비, 교양오락비, 휴가비, 내구재구입비, 차량관련비 등 일반적으로 소득탄력성이 높다고 알려진 지출비목에 대해 소득탄력성이 2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들 지출비목은 소득이 25%를 넘게 감소하는 집단에서는 점차 소득탄력성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50%이상 감소하는 경우 소득탄력성이 1을 넘는 경우는 휴가비와 내구재구입비 두 지출비목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출비목에 따라 소득수준이 변함에 따른 지출규모의 변화행태가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외식비나 피복비 등의 경우 소득규모가 어느 정도 감소하였을 때 소비지출규모가 감소하지만, 점차 지출감소폭이 줄어들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소득감소와 더불어 소비지출이 비례해서 감소하는 것이

<표 8> 소득감소가계의 소득감소정도에 따른 지출비목별 지출규모의 변화: 1996년, 1998년

(단위: 만원, %)

| | 25%이하 소득감소(268가구) | | | | | 25%초과·50%이하 소득감소(287가구) | | | | | 50%초과 소득감소(342가구) | | | | |
|---------|-------------------|-------|-------|-------|--------|-------------------------|------|-------|-------|-------|-------------------|------|-------|-------|-------|
| | 96 | 98 | 변화량 | 변화율 | 탄력성 | 96 | 98 | 변화량 | 변화율 | 탄력성 | 96 | 98 | 변화량 | 변화율 | 탄력성 |
| 식료품비 | 37.3 | 32.1 | -5.2 | -13.9 | 1.072 | 35.7 | 28.1 | -7.6 | -21.3 | 0.578 | 32.7 | 24.2 | -8.5 | -26.0 | 0.353 |
| 의식비 | 4.1 | 2.3 | -1.8 | -43.9 | 3.377 | 4.5 | 1.9 | -2.6 | -57.8 | 1.570 | 3.0 | 1.1 | -1.9 | -63.3 | 0.861 |
| 주거비 | 6.0 | 3.8 | -2.2 | -36.7 | 2.821 | 5.6 | 3.6 | -2.0 | -35.7 | 0.970 | 4.8 | 2.5 | -2.3 | -47.9 | 0.651 |
| 관리/공과비 | 10.7 | 11.3 | 0.6 | 5.6 | -0.431 | 11.5 | 11.1 | -0.4 | -3.5 | 0.095 | 11.2 | 10.1 | -1.1 | -9.8 | 0.133 |
| 피복및신발비 | 8.5 | 5.8 | -2.7 | -31.8 | 2.443 | 8.8 | 4.9 | -3.9 | -44.3 | 1.204 | 8.1 | 3.5 | -4.6 | -56.8 | 0.772 |
| 교양오락비 | 5.1 | 3.4 | -1.7 | -33.3 | 2.564 | 6.7 | 3.1 | -3.9 | -58.2 | 1.460 | 4.9 | 2.3 | -2.6 | -53.1 | 0.721 |
| 교육비 | 22.0 | 22.0 | 0.0 | 0.0 | 0.000 | 23.3 | 18.8 | -4.5 | -19.3 | 0.525 | 19.7 | 11.3 | -8.4 | -42.6 | 0.579 |
| 자녀보육비 | 0.4 | 0.3 | -0.1 | -25.0 | 1.923 | 0.7 | 0.4 | -0.3 | -42.9 | 1.165 | 0.2 | 0.2 | 0.0 | 0.0 | 0.000 |
| 의료비 | 4.8 | 4.1 | -0.7 | -14.6 | 1.122 | 4.8 | 3.5 | -1.3 | -27.1 | 0.736 | 6.0 | 4.9 | -1.1 | -18.3 | 0.249 |
| 경조사비 | 8.7 | 8.7 | 0.0 | 0.0 | 0.000 | 9.8 | 7.3 | -2.5 | -25.5 | 0.693 | 9.3 | 5.9 | -3.4 | -36.6 | 0.497 |
| 휴가비 | 1.4 | 0.8 | -0.6 | -42.9 | 3.297 | 1.1 | 0.6 | -0.5 | -45.5 | 1.235 | 1.3 | 0.3 | -1.0 | -76.9 | 1.045 |
| 내구재구입비 | 4.2 | 2.1 | -2.1 | -50.0 | 3.846 | 4.3 | 1.5 | -3.0 | -69.8 | 1.769 | 3.1 | 0.8 | -2.3 | -74.2 | 1.008 |
| 차량관련비 | 21.1 | 14.2 | -6.9 | -32.7 | 2.515 | 21.6 | 10.4 | -10.2 | -47.2 | 1.409 | 14.1 | 6.7 | -7.4 | -52.5 | 0.713 |
| ●총소비지출액 | 134.2 | 110.8 | -23.4 | -17.4 | 1.341 | 138.3 | 95.4 | -42.9 | -31.0 | 0.843 | 118.4 | 73.9 | -44.5 | -37.6 | 0.511 |

아니며, 소비지출규모가 감소되어감에 따라 하방경직의 경향을 띠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4. 가계경제구조분석: 자산/부채구조

<표 9>는 소득감소가계와 증가가계의 1996년과 1998년의 자산과 부채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계 소득수준의 변화는 가계의 자산과 부채구조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산과 부채의 항목에 따라 그리고 소득감소가계와 증가가계에 따라 변화행태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에서 1998년에 이르는 동안 가계의 소득감소는 자산의 감소를 가져왔다. 이들 집단의 평균자산은 1996년에 10,442.9만원 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9,556.6만원으로 886.3만원이 감소하였 는데, 내역을 살펴보면 부동산자산의 감소가 특히 컸으며 다음으 로 보험불입액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의 감소와 함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 하는 등의 결과일 수도 있으나, 당시 부동산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이 부동산자산규모의 감소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소득감소가 계에서의 부동산자산의 감소는 전체 자산감소분의 71.0%에 이 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자산형태로 인식되는

<표 9> 소득감소가계와 증가가계의 자산과 부채규모의 변화: 1996년, 1998년

(단위: 만원, %)

| | 소득감소가계 | | | | 소득증가가계 | | | |
|-------------|---------|--------|---------|-------|---------|---------|--------|-------|
| | 1996 | 1998 | 변화량 | 변화율 | 1996 | 1998 | 변화량 | 변화율 |
| 예금자산 | 570.3 | 661.3 | +91.0 | 16.0 | 361.3 | 1004.7 | +643.5 | 178.1 |
| 보험불입액 | 446.9 | 224.2 | -222.7 | -49.8 | 273.6 | 208.5 | -65.0 | -23.8 |
| 투자자산* | 70.3 | 74.9 | +4.6 | 6.6 | 77.3 | 144.7 | +67.4 | 87.3 |
| 사금융저축** | 218.2 | 88.8 | -129.5 | -59.3 | 201.3 | 156.6 | -44.7 | -22.2 |
| 부동산자산 | 9137.2 | 8507.4 | -629.7 | -6.9 | 9391.4 | 9759.4 | +368.0 | 3.9 |
| ●자산총액① | 10442.9 | 9556.6 | -886.3 | -8.5 | 10304.8 | 11273.9 | +969.2 | 9.4 |
| 금융기관부채 | 498.1 | 640.9 | +142.9 | 28.7 | 561.6 | 643.4 | +81.9 | 14.6 |
| 기타부채*** | 102.3 | 90.1 | -12.2 | -11.9 | 128.5 | 404.8 | +276.3 | 215.1 |
| ●부채총액② | 600.4 | 731.0 | +130.7 | 21.8 | 690.0 | 1048.2 | +358.2 | 51.9 |
| ●순자산총액(①-②) | 9842.5 | 8825.5 | -1017.0 | -10.3 | 9614.7 | 10225.7 | +611.0 | 6.4 |

* 투자자산은 주식과 채권보유액을 의미함.
 ** 사금융저축은 계부은돈과 사채준돈을 포함함.
 ***기타부채는 사채빌린돈과 계탄돈을 포함함.

사금융저축은 경제위기상황과 더불어 129.5만원이 줄었다. 가계 소득의 감소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가계당 평균 142.9만원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1998년의 부채총액은 1996년의 600.4만원에 비해 21.8% 증가한 731.0만원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동기간동안에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규모가 가계평균 1000만원이상 줄어, 1998년 순자산총액은 8825.5만원이었다.

반면 소득증가가계는 동기간 동안에 예금자산을 643.5만원 늘었고 투자자산 또한 67.4만원이 늘었으며, 반면 보험불입액과 사금융저축은 감소하였다. 이들 집단의 자산은 2년동안 969.2만원이 증가하여, 1998년에는 11273.9만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계부채에서도 358.2만원의 부채를 늘렸는데, 결과적으로 순자산총액은 10225.7만원으로 1996년의 9614.7만원에 비해 611.0만원이 늘었다.

<표 10>은 1996년과 1998년의 소득감소가계의 소득감소정도별 자산과 부채규모를 나타낸다. 소득이 25%이하 감소한 집단의 경우 가계의 순자산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소득에 비해 25%초과하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가계순자산이 감소하였다. 소득감소 25%이하 집단의 경우 예금자산과 투자자산, 그리고 부동산자산 규모는 약간의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보험불입액과 사금융저축을 줄이기 시작하였으며, 부채규모부분에서는 금융기관의 것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감소비율이 25%를 넘어가면서 투자자산과 부동산자산의 규모도 감소하였으며, 부채규모의 증가와 함께 순자산총액이 1840.5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의 감소율이 50%를 초과한 가계에서는 예금자산도 줄기 시작하였으며, 부채증가와 함께 이들 집단의 순자산총액은 2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단기간동안의 소득감소가 가계자산규모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표 11>은 1996년과 1998년의 소득감소가계의 가구주 연령계층별 자산과 부채규모를 나타낸다. 본 표에 의하면 동기간동안의

어려운 경제상황은 연령계층에 따라 자산 및 부채상황이 다르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감소폭이 컸는데, 부채규모는 연령계층별로 16.4%에서 24.1%정도로 비교적 유사한 수준의 변화율을 보인 반면 자산규모의 변화율이 고연령계층에서 감소폭이 컸다. 60대가구의 경우 자산총액이 1725.2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계층 중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전 연령계층에서 보험불입액을 줄였고, 사금융저축 또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인 4, 50대가구의 경우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자산으로 분류되는 예금자산수준이 도리어 늘어나는 변화를 보였다. 30대이하가구의 투자자산은 1996년 평균 115.1만원으로 여타집단에 비해 가장 많았는데 1998년에 투자자산을 더욱 증가하는 행태를 보였다. 투자자산으로 161.3만원을 보유함으로써 동기간동안 투자자산 보유규모에 있어 40.1%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러한 행태는 4, 50대가구가 투자자산을 1996년 보유액의 32.2%, 98.0%를 감소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

동기간동안 자산감소폭이 가장 컸던 60대가구의 경우 부동산자산에서의 감소가 타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동산자산에서만 1551.9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자산감소분의 90%를 차지하였다. 자산보유액이 가장 큰 50대가구 역시 부동산자산에서의 감소가 60대가구 다음으로 컸다. 이들은 부동산자산에서만 1096.6만원의 감소가 있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전체자산감소분의 85.2%에 달하는 것이다.

<표 10> 소득감소가계의 소득감소정도별 자산과 부채규모의 변화: 1996년, 1998년

(단위: 만원, %)

| | 25%이하 소득감소가구 | | | | 25%초과-50%이하 소득감소가구 | | | | 50%초과 소득감소가구 | | | |
|--------------|--------------|---------|--------|-------|--------------------|--------|---------|-------|--------------|--------|---------|-------|
| | 96 | 98 | 변화량 | 변화율 | 96 | 98 | 변화량 | 변화율 | 96 | 98 | 변화량 | 변화율 |
| 예금자산 | 435.7 | 836.9 | 401.2 | 92.1 | 623.1 | 751.2 | 128.1 | 20.6 | 631.6 | 448.3 | -183.3 | -29.0 |
| 보험불입액 | 416.8 | 329.2 | -87.6 | -21.0 | 579.3 | 247.0 | -332.3 | -57.4 | 359.3 | 122.7 | -236.6 | -65.9 |
| 투자자산 | 62.9 | 111.6 | 48.7 | 77.4 | 104.0 | 36.2 | -67.8 | -65.2 | 47.7 | 78.5 | 30.8 | 64.6 |
| 사금융저축 | 159.9 | 77.1 | -82.8 | -51.8 | 137.0 | 76.5 | -60.5 | -44.2 | 332.2 | 108.1 | -224.1 | -67.5 |
| 부동산자산 | 8662.7 | 9755.1 | 1092.4 | 12.6 | 9527.4 | 8105.0 | -1422.4 | -14.9 | 9181.4 | 7867.4 | -1314.0 | -14.3 |
| ● 자산총액① | 9738.0 | 11109.9 | 1371.9 | 14.1 | 10970.7 | 9216.0 | -1754.7 | -16.0 | 10552.3 | 8625.1 | -1927.2 | -18.3 |
| 금융기관부채 | 418.9 | 535.0 | 116.1 | 27.7 | 526.8 | 559.4 | 32.6 | 6.2 | 536.0 | 792.4 | 256.4 | 47.8 |
| 기타부채 | 82.0 | 79.0 | -3.0 | -3.7 | 49.9 | 103.0 | 53.1 | 106.4 | 162.2 | 88.0 | -74.2 | -45.8 |
| ● 부채총액② | 500.9 | 614.0 | 113.1 | 22.6 | 576.6 | 662.4 | 85.8 | 14.9 | 698.2 | 880.4 | 182.2 | 26.1 |
| ● 순자산총액(①-②) | 9237.0 | 10496.0 | 1259.0 | 13.6 | 10394.1 | 8553.6 | -1840.5 | -17.7 | 9854.1 | 7744.7 | -2109.4 | -21.4 |

<표 11> 소득감소가계의 가구주 연령계층별 자산과 부채규모의 변화: 1996년, 1998년

(단위: 만원, %)

| | 30대이하 | | | | 40대 | | | | 50대 | | | | 60대이상 | | | |
|--------|--------|--------|--------|-------|---------|---------|--------|-------|---------|---------|---------|-------|---------|--------|---------|-------|
| | 96 | 98 | 변화량 | 변화율 | 96 | 98 | 변화량 | 변화율 | 96 | 98 | 변화량 | 변화율 | 96 | 98 | 변화량 | 변화율 |
| 예금자산 | 622.4 | 580.3 | -42.1 | -6.8 | 484.3 | 780.4 | 296.1 | 61.1 | 568.0 | 893.6 | 325.6 | 57.3 | 579.4 | 507.3 | -72.1 | -12.4 |
| 보험불입액 | 674.1 | 354.4 | -319.7 | -47.4 | 543.4 | 287.4 | -256.0 | -47.1 | 421.3 | 164.8 | -256.5 | -60.9 | 88.6 | 41.8 | -46.8 | -52.8 |
| 투자자산 | 115.1 | 161.3 | 46.2 | 40.1 | 96.4 | 65.4 | -31.0 | -32.2 | 44.2 | 0.9 | -43.3 | -98.0 | 7.4 | 21.5 | 14.1 | 190.5 |
| 사금융저축 | 208.4 | 51.1 | -157.3 | -75.5 | 334.3 | 242.2 | -92.1 | -27.6 | 287.5 | 71.9 | -215.6 | -75.0 | 84.3 | 15.8 | -68.5 | -81.3 |
| 부동산자산 | 6556.5 | 6872.9 | 316.4 | 4.8 | 10169.2 | 9560.6 | -608.6 | -6.0 | 11772.1 | 10675.5 | -1096.6 | -9.3 | 9801.7 | 8249.8 | -1551.9 | -15.8 |
| ●자산총액 | 8176.5 | 8020.0 | -156.5 | -1.9 | 11627.6 | 10936.0 | -691.6 | -5.9 | 13093.1 | 11806.7 | -1286.4 | -9.8 | 10561.4 | 8836.2 | -1725.2 | -16.3 |
| 금융기관부채 | 544.4 | 733.6 | 189.2 | 34.8 | 568.4 | 670.0 | 101.6 | 17.9 | 632.5 | 914.8 | 282.3 | 44.6 | 287.9 | 313.7 | 25.8 | 9.0 |
| 기타부채 | 155.8 | 123.0 | -32.8 | -21.1 | 68.2 | 104.2 | 36.0 | 52.8 | 164.3 | 74.0 | -90.3 | -55.0 | 21.6 | 46.5 | 24.9 | 115.3 |
| ●부채총액 | 700.2 | 856.6 | 156.4 | 22.3 | 636.6 | 774.2 | 137.6 | 21.6 | 796.8 | 988.8 | 192.0 | 24.1 | 309.5 | 360.2 | 50.7 | 16.4 |
| ●순자산총액 | 7476.3 | 7163.4 | -312.9 | -4.2 | 10991.0 | 10161.8 | -829.2 | -7.5 | 12296.3 | 10817.9 | -1478.4 | -12.0 | 10251.9 | 8476.0 | -1775.9 | -17.3 |

V.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IMF관리체제라 일컬어지는 경제위기상황에서 다수 가계가 소득감소를 경험하면서 어떤 식으로 가계경제구조를 변화, 대응하였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해당기간동안 소득감소를 경험한 가계는 소득의 감소를 소비지출구조의 변화 및 자산구조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경제적 위기를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식료품비와 같이 지출비중이 큰 지출비목과 외식비 등과 같이 소득탄력성이 높은 지출비목을 중심으로 지출규모를 줄였으며, 또한 적금이나 사금융저축을 해지하고, 부동산자산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늘려 감소한 소득에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가구의 1996년 월평균소득은 190.5만원이었고, 1998년에는 141.9만원으로 감소하였다. 동기간에 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65.1%이었으며 이들 소득감소가구는 월평균 226.3만원의 소득에서 123.9만원으로 45.2%가 감소하였으며, 소득규모로는 102.3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감소분의 80% 이상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감소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소득감소가계는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전 지출비목에서 소비지출규모가 감소하였고, 소득증가가계 역시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감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총소비지출은 다소 줄었다. 소득감소가계의 경우 차량관련비, 식료품비, 자녀교육비 등에서 가장 많은 지출규모를 줄였으며, 내구재구입비, 휴가비, 외식비, 교양오락비, 차량관련비 등이 높은 소득탄력성을 보였다. 관리/공과금, 교육비, 경조사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지출비목에서 소득감소폭이 큰 집단일수록 소득탄력성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동기간동안의 소득감소는 가계자산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소득감소가계의 평균자산은 1996년에 10,442.9만원이었던 것

이 1998년에는 9556.6만원으로 886.3만원이 감소하였다. 특히 부동산자산과 보험불입액의 감소가 컸으며, 부채총액 또한 증가함으로써 순자산은 1017.0만원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감소폭이 커짐에 따라 보험불입액과 사금융저축을 줄이기 시작하던 것에서 점차 투자자산과 부동산자산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주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동산자산의 대폭감소에 따라 순자산의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득감소가계의 경우 소득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의 소득감소가 일시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부업을 한다던가 재취업을 한다던가를 시도할 시간적,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경옥과 정용선의 연구(1999)에 의하면 경제위기상황에서 소득확장의 노력을 젊은 연령층에서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증거가 보여진다. 고연령계층의 경우 경제적 위기에 따른 소득손실이 가장 많았는데, 이들의 경우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대처능력과 시간적 한계를 고려할 때 경제위기상황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집단인 것으로 사료된다. 소득감소가 증장기로 지속되는 가계의 경우 줄어든 소득분에 대한 대처방식에 대해서는 1998년 이후의 자료분석을 통한 향후 연구에서 보다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감소가계의 소득구조를 살펴보면 동기간동안 이전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소득이 공격 또는 사적보조금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 등 주요소득출처에서 소득감소를 경험할 때 소득이 보완되어질 수 있는 소득항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분석결과 경제전반에 걸친 위기상황에서는 이전소득을 제공하는 주체 역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리어 보조금을 줄임으로써 소득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책적 측면에서 급작스러운 소득감소에 대한 효율적 공격보조금 제도 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가계운용의 입장에서는 가계소득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소득출처의 다변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득규모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소득이 감소할 때와 증가할 때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감소집단의 경우 소득탄력성이 높았으며, 소득감소분이 커질수록 소득탄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소득증가가는 소득은 증가하였으나 소비지출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인 경제이론은 단기적 가계소득의 변화에 대해 소비지출은 영향을 받지 않거나 또는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논의되어왔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당시 가계소득의 감소에 대해 소비지출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 가계소득과 소비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기존 연구들을 뒷받침하지 못하거나 또는 소비자들의 경기전망과 같은 주관적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위기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후속연구를 통해 관련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계소득의 감소에 대한 자산운용의 변화는 자금유저축과 함께 보험불입액의 감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보험해약의 대처방법을 선택한다는 강이주와 성영애(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김양희 등의 연구(1999)에서도 가구주의 실직과 함께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했다는 가구가 4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부조적 기능을 가진 보험이 가장의 실직 등 소득감소에 대한 대비기능을 갖지 못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의 상황에서 보험부터 해약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가계의 다양한 원인에 의한 대책으로써의 보험기능을 보완하여야 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보험과 예금의 해약을 동일시하였으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험불입액은 소득감소와 함께 우선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고, 예금자산의 감소는 차후적 대처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험불입액과 예금자산에 대해 가계운영적 입장에서의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1996년과 1998년 두 기간동안의 가계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해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차후 연계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경제위기상황을 겪고 또 상황이 회복되는 과정에서의 가계경제구조의 대응행태를 고찰함으로써 보다 유의한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접수일 : 2002년 8월 21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11월 29일

【참 고 문 헌】

- 강이주·박명희(1990). 생활양식과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2), 84-99.
- 강이주·성영애(1999). 가계소득감소 경험여부가 가계의 경제적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10(2), 71-83.
- 곽인숙·송효숙·김경애(1999). 경제적 위기가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21-137.
- 구인회(2001).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경제학회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93-114.
- 김기욱·서병숙·이연숙·계선자·박미석·주인숙·이미선·한정화(1998). 경제난과 가정의 건전소비전략. *한국가정생활개선전람회 제3회 심포지엄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건전소비전략 자료집*, 32-67.
- 김기욱·이승신(1990). 소비자의 주관적 경기전망과 소비지출 패턴. *소비자학연구*, 1(2), 15-31.
- 김기화(1991). *거시경제학*. 서울: 태진출판사.
- 김양희·곽인숙·윤정혜·이승미·정현숙·최규련·최현자(1999). 가정의 실직전 직업유형에 따른 실직가정의 생활실태와 대처방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93-104.
- 노용원·배진한(1998). 지역별 소득분배 및 생활실태 분석. *가구소비실태조사 종합분석사업보고서*. 통계청.
- 두경자(1999). IMF관리체제 이전·이후의 가계소비수준 회복 정도와 영향변인-주부의 주관적 인지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87-97.
- 문숙제·정순희(1995). 소비지출 패턴 차이에 관한 연구-서울지역 편모가족과 양부모가족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6(2), 53-66.
- 박혜인·조은숙(1998). IMF 경제위기이후 혼례비용의 계층별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39-154.
- 배준호(1998). 저소득층가구의 생활실태 분석과 도시자영업자 소득추계. *가구소비실태조사 종합분석사업보고서*. 통계청.
- 배준호·양세정(2002). 맞벌이 근로자가구 배우자의 퇴직과 가구 간 경제력 격차의 변화. *Working Paper*.
- 서정희·홍순명(2000). 대학생의 경제적 불안과 식생활 대처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8(1), 39-49.
- 성영애·양세정(1997).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 구조 및 관련요인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103-117.
- 성영애·최현자(2000). 유형별 부채의 보유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2), 65-77.
- 송태희(1998). IMF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소비자의 역할.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98-01.
- 양세정(1997). 주부취업과 가계경제구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65-182.
- 이경옥·정용선(1999). 한국 가계의 경제위기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8(1), 81-93.
- 이종성(1998). IMF이후 가계 소비생활의 변화와 특징. *소비자연구문집*, 21, 55-72.
- 정영숙(1999). 편부모가족의 경제생활실태 및 변동추이와 복지정책적 함의-경제위기전후에 대한 비교적 접근. *소비문화연구*, 2(2), 223-243.
- 최자영·임정빈(1996). 도시가정의 재정적 사건, 대처전략 및 경제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75-189.

- 통계청(1999). 1999년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
보도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1998). IMF 체제 전후의 소비자 의식 및 행
태 비교 보도자료.
- 황덕순(1995). 도시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대처행동.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덕순·주문자(1999). 봉급생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과 금융자산 비교 분석. *한국가정과학회지*, 2(1), 1-11.
- Danes, S.M. & Rettig, K.D.(1995). Economic adjustment
strategies of farm men and women experiencing
economic stres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6,
59-73.
- Elder, G.H., Conger, R.D., Foster, E.M. & Ardel, M.(1992).
Families under economic pressure. *Journal of Family
Issues* 13(1), 5-37.
- Katona, G.(1975). *Psychological economics*. Elsevier Scientific
N.Y.: Publishing Company.
- Rettig, K.D. & Danes, S.M.(1994). Economic adjustment to
perceived stress. *Consumer Interest Annual* 40, 128-135.
- Varcoe, K.P.(1990). Financial events and coping strategies of
household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4, 57-69.